

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선정 공연 소개 자료



[무 용]

무용 1 윤미라무용단 : 화첩-공무도花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윤미라무용단		
공연명	화첩-공무도花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
실무자명	강정환	E-mail	kang0406jung@nate.com
		연락처	02-961-0395
단체소개	<p>윤미라무용단은 1989년 창단된 이래로 예술감독인 윤미라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춤과 창작작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윤미라무용단은 정단원 30명과 연수단원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윤미라무용단은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들인 이동안, 박지홍, 최희선의 뒤를 이어 전통춤을 이 시대의 살아있는 춤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의 현대화 작업을 이어가고, 지속적인 창작 작품 발표를 통해 한국무용계의 새로운 창작 기법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p> <p>윤미라무용단은 2002년 문예진흥원의 창작활성화지원공연에 선정되어 <물빛그늘>을 공연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향발무>로 PDF 안무상을 수상하였으며, 1996년에는 제18회 서울국제무용제에 <단장>으로 참가하여 우수상과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서울문화재단 무대제작지원금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아르코예술극장의 2008 Arko Partner 공동기획 공연에 선발된 <화첩-공무도花>를 공연하여 대한민국무용대상 우수상(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달곳> 공연과 함께 2014년 <달곳>으로 제7회 대한민국무용대상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p> <p>윤미라무용단은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국춤과 함께 재창작된 신전통춤, 한국 창작무용 등을 선보이며,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윤미라무용단은 명실상부 가장 한국적인 무용단체로 평가받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07.05.~07.06. 서울문화재단 무대제작지원금 선정 Arko Partner 공동기획공연 ○ 2008.11.23. 제1회 대한민국 무용대상 갈라공연 '화첩-공무도花 중 유채꽃'(송파구민회관) ○ 2009.11.10.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화첩-공무도花'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2010.12.09. NOW MOVEMENT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무용단 초청 '화첩-공무도花 中 검은 꽃- 안개꽃' (세종M씨어터) ○ 2011.07.04.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폐막 갈라공연 '화첩-공무도花 中 유채꽃'(예술의전당 토월극장)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4.04.10.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신전통-전통의 미래 무악지우' 2. 2023.12.09. 양재 M극장, 2023 윤미라무용단 춤 시리즈 춤.작가전 3. 2023.10.28. 양재 M극장, 윤미라무용단 기획공연 '젊은 춤 동인전' 4. 2023.09.06.-08.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SIDance2023 '산조춤-그 흐름속으로' 5. 2023.07.04.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개막식 '달곳' 		

구 분	내 용		
	6. 2022.12.17. 양재 M극장, 율미라무용단 기획공연 '젊은 춤 동인전' 7. 2022.12.03. 양재 M극장, 2022 달구벌입춤과 함께하는 우리춤 '설중가인' 8. 2022.11.27. 국립극장 해오름, 舞樂知友(무악지우)신전통-전통의 미래 9. 2022.10.01. 양재 M극장, 2022 달구벌입춤과 함께하는 우리춤 '청풍명월' 10. 2022.08.06. 양재 M극장, 2022 달구벌입춤과 함께하는 우리춤 '성하풍류' 11. 2022.06.11. 양재 M극장, 2022 달구벌입춤과 함께하는 우리춤 '무자만묘' 12. 2022.04.02. 양재 M극장, 2022 달구벌입춤과 함께하는 우리춤 '춘풍화무' 13. 2021.12.18. 양재 M극장, 율미라무용단 기획공연 '젊은 춤 동인전' 14. 2021.12.03. 양재 M극장, 고깔소고춤과 함께하는 진쇠춤 15. 2021.10.01. 양재 M극장, 승무와 함께하는 진쇠춤 16. 2021.08.06. 양재 M극장, 평양검무, 호남살풀이와 함께하는 진쇠춤 17. 2021.06.04. 양재 M극장, 도살풀이와와 함께하는 진쇠춤 18. 2021.04.09. 양재 M극장, 태평무와 함께하는 진쇠춤		
공연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https://youtu.be/xfgptb4pko4 화첩-공무도花 1 o https://youtu.be/ui8Mp4z9ehI 화첩-공무도花 2 o https://youtu.be/ZXNOtGdl6m0 화첩-공무도花 3 		
참여인원	총 63명 (출연진 41명 / 스태프 22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무용전공자, 중장년 가족단위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2m)×높이(7m)× 깊이(10m) 이상 규모 조절 가능	-세트배턴 10개 이상 -회전무대 (협의가능) -빔프로젝트 (전면, 리어2) -리어스크린
기타 사항	전환용 스크린 제작예정 (분할 스크린) 지화(종이셋트) 방염 후 제작 예정		
기획 및 제작의도	2008년 초연되었던 '화첩'은 아름다운 춤과 감동적인 음악,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 했고, 제1회 대한민국무용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문화부장관상)했으며, 2009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2010년 서울시립무용단 주최 NOW MOVEMENT 에 초청된 바 있다. 2024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버전의 '화첩'으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한다.		
컨셉 및 주제	2008년 초연되었던 '화첩'은 아름다운 춤과 감동적인 음악,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 했고, 제1회 대한민국무용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문화부장관상)했으며, 2009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2010년 서울시립무용단 주최 NOW MOVEMENT 에 초청된 바 있다. 2024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버전의 '화첩'으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한다.		
내용 및 특징	전통 오방색인 검정, 파랑, 노랑, 빨강, 하양의 이미지에 종이꽃, 부레옥잠, 유채꽃, 동백, 안개꽃을 접목시켜 인생사를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검은 꽃은 종이로 만든 지화(紙花), 푸른색의 부레옥잠, 노란색의 유채꽃, 빨간색의 동백, 그리고 흰색의 안개꽃을 이미지화 했다.		







구 분	내 용
	<p>장면별 영상을 활용한 연출기법을 활용했고, 특히 화첩의 이미지를 살려 영상을 제작했다(세워진 책 모양으로 연출)</p>  <p>화첩 이미지 연출</p> <p><공연 수정계획> 2008년 초연 당시 회전무대 활용, 세트 전환, 영상 맵핑, LED 조명기 활용 등 당시 기술력을 총 동원한 작업을 진행 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당시 기술은 오래되거나, 흔한 기술이 되었다. 새로운 맵핑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과 자동으로 전환되는 특수 효과 등 기술력과 결합된 무용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p> <p><공연내용></p> <p>I. 종이꽃 - 검은 눈물 (검음 : 北) 오행에서 북은 黒水 태고의 어둠 죽음 어둠의 물은 만물의 근원을 품었다가 다시 내려주는 생명수</p>  <p>부레옥잠 - 물의 기억 (파랑 : 東) 동은 南木 생명이 솟아오르는 푸른 기운 삶의 기운이 아무리 성성해도 아직은 물을 떠날 수 없다 사랑고품은 근원을 향한 목마름.. 물에 대한 기억</p> <p>III. 유채꽃 - 바다 사이 (노랑 : 中) 중양은 黃土 생명이 만개한 땅의 한 가운데 유채는 서로 몸을 비비고 살아가는 중생을 닮은 꽃, 꽃, 꽃들</p>  <p>유채꽃 - 바다 사이 (노랑 : 中)</p>

구 분	내 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동백 - 오래된 혈흔 (빨강 : 南)</p> </div> <div style="width: 45%;"> <p>IV. 동백 - 오래된 혈흔 (빨강 : 南) 남은 赤化 붉은 것은 외롭다 불이 붙이고 꽃이 꽃인 것은 그 피어오름의 순간이 언제나 저 홀로이기에..</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V. 안개꽃 - 바람에게 (하양 : 西) 서는 白金 해와 달 서쪽으로 기우는 까닭은. 서전은 안개꽃 같은 무진극락(無盡極樂) 바람도 숨죽인 그 빛 사이로 사라진 사리 같은 없음의 세계 꽃이 춤이 되고 춤이 꽃이 되는 춤을 타고 넘어 넘어 꽃에 다다르는.. 그 꽃마저 사라져야 할 서전꽃</p> </div> <div style="width: 45%;">  <p>안개꽃 - 바람에게 (하양 : 西)</p> </div> </div>
<p>기대효과</p>	<p>문화 소외계층 지원 : 지역 공연장에서의 '화첩' 공연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에게도 문화 예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교나 지역 사회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p> <p>지역 경제 활성화 : 공연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지역 시민들이 지역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고 지역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p> <p>문화교류 촉진 : 서울에서 활동하는 윤미라무용단이 지역공연을 하며 지역의 문화예술가들과 만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다양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수 있다.</p>

무용 2 백현순무용단 : 유림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백현순무용단		
공연명	유림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
실무자명	정유진	E-mail	uujinn2@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백현순무용단은 '백현순 대구무용단'으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서울로 직장을 옮겨와 '백현순 무용단'으로 개칭하였다. 안무자 백현순은 일찍부터 영상을 통한 한국춤 창작으로 춤의 표현적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서울무용제·대구무용제·전국무용제, 한국무용제전 등을 통해 탄탄한 안무력을 키워왔다.</p> <p>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21C 문화 혁명 시대에 백현순무용단은 기존의 한국창작춤 공연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춤 창작에 과학을 개입시킴으로써 비주얼 춤 형태의 새로운 창의적 작품을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춤과 음악, 춤과 문학, 춤과 미술과의 만남 등은 기존의 무용 형태에서 더러 실험되고 공연되었지만 춤과 과학이 예술적 융복합으로 만나 이루어지는 백현순무용단의 춤 공연은 그만큼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2주 토, 일요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 2, 3주 토, 일요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공연실적	<p><신청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3. 30~31 <유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 2012. 11. 4 <유림, 천추여죄군>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공연 (창작활성화 3,500만원 지원 선정) ○ 2013. 6. 23 <유림, 다시 돌아보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 (국립극장 기획공연)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2 민족춤 페스티벌 참가 (마포아트센터 대극장) 2. 2023 세계민족무용초청공연 참가 (한예종 서초동 캠퍼스 이강숙홀) 3. 2023 고무신 춤 축제 참가 (서울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영상	-		
참여인원	총 43명 (출연진 30명 / 스태프 13명)		
소요시간	총 65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지역시민 및 청소년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20m)×높이(15m)×깊이(15m)	댄스플로어 9롤, 덧마루 20개
기타사항	공연 중 일부 라이브 음악 사용		
기획 및 제작의도	<p><연출 및 제작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전통 정서인 유교를 바탕으로 구성된 무용극 '유림'은 엄격한 유림의 세계를 형상화하면서도 비인간적인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인간 본연의 정서,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유림의 양식화된 춤과 남사당의 자유로운 춤의 대비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와 예술, 기성세대와 신세대, 주류와 비주류, 보수와 진보 등 오늘날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갈등과 화해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를 통해 숨 가쁘고 거칠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도리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되새기며 정서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유림의 정신세계를 담은 역동적인 창작 춤, 선비의 올곧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장엄한 음악, 독창적인 앵글의 다이나믹한 영상, 화려한 전통의상의 이상적인 조화에 우리 전통의 특색이 있는 '유교'라는 테마를 더하여 다른 공연들과 차별화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고자 한다. 온고지신을 통해 한국 창작춤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컨셉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인들이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시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 도덕의 타락이 사회 저변까지 만연한 지금과는 달리 참되고 올곧은 삶을 살고자 했던 유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교의 핵심사상인 인의 예지와 사랑, 지혜, 타인을 위한 배려, 자연과의 조화, 공존의 사상까지 우리나라의 뿌리를 이루었던 큰 힘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독특한 시간구조와 이를 관통하는 '유교'라는 사상, 과거 속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유교의 의미와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교훈적인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 유교사상이 녹아있는 한국 창작춤의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와 문화의 근원을 형성하는 유학과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유림들을 통해 현대사회까지 살아있는 우리 문화의 현상과 그들의 선비 정신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과거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며 한국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인간의 몸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표현방식인 춤을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한국적 기상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 분	내 용		
<p>내용 및 특징</p>	<p><공연 내용></p> <p>○ 시놉시스</p> <p>- 현대의 제의장면, 소가족,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는 간단하면서도 자유로운 제사. 자연스럽게 무대가 과거로 바뀌면, 많은 선비들이 모인 가운데 웅장하고, 형식적이면서도 느낌의 미학이 넘치는 과거의 제의장면이다. 그러나 이토록 엄숙하고 신성한 제의 장소에 여사당패의 놀이판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고, 한바탕 사당패들의 놀이가 펼쳐진다. 이에 제사를 진행하던 선비들은 매우 화가 나 사당패를 잡아들인다. 아름다운 여자 사당과 양반 덕 도령이 첫눈에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춤을 사랑하는 젊은 도령은 사당패의 소박하고 활기찬 우리민속춤을 보고 놀라고, 사당패에게 엄한 별을 내리려던 선비들은 그들의 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오히려 모두들 그녀들과 어울려 같이 춤을 추며, 유교의 근본사상인 인의예지에 담긴 사랑과 조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결국 젊은 도령과 여사당의 사랑을 알게 된 도령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매우 분노한다.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결국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진다. 사당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여인은 온갖 핍박과 멸시, 만류 속에서도 쓰러진 대감을 자신의 민간요법으로 치료해낸다. 대감이 쾌유하자 여인은 사당패와 함께 도령 몰래 떠난다. 대감, 사당패들이 떠난 자리에서 지난 일을 회상한다. 사람은 타고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날들, 하늘아래 지극한 도를 구하고자 했고, 인(仁)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의(義)로서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의리를 중요시하였으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禮)로 돌아가고자 했고, 지(智)를 통해 교육을 중요시하였다. 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한다.</p> <p>이 공연은 전체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유림의 춤(제의)- 사당패의 춤-대감의 분노-연민의 정-사랑-이별-유림의 춤(인의예지)</p> <p><공연수정 계획></p> <p>○ 별도의 사각 무대 마련 및 적극적인 영상 활용</p> <p>- 별도로 뒤쪽에 사각무대를 마련하여 양반집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춤을 춘다. 무대 앞쪽에서는 제구를 든 춤꾼들이 제의 춤을 추어 극의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유교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p> <p>- 작품의 배경이 되는 유림의 한옥, 나무 등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시간, 장소의 이동을 표현할 것이며, 스크린에 노출되는 창작 영상들은 독창적인 앵글로 작품의 퀄리티를 극대화 시킬 것이다.</p> <p>○ 공연의 강점인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 하기 위한 일부 장면 재연출</p> <p>- 빼어난 의상,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이미지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스토리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공연이었다고 평가받았으나, 일부 이전 공연에서 인위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당패 놀이와 양반 대감택 제사 형식의 유연한 연결성, 연정의 모티베이션 제시 등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의 스토리로 재연출하여 무용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영상을 입체적으로 기술보완 할 예정이며, 의상 디자인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품의 극성을 강화하면서 시각적 보완을 통해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p> <p>○ 사당패의 춤 공연시 라이브음악을 사용하여 극적 생동감을 더하여 춤의 재미를 주고자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32 1906 1345 2112"> <tr> <td data-bbox="432 1906 887 2112"> <p>○ 무대이미지(1) - 기존공연사진</p>  </td> <td data-bbox="887 1906 1345 2112"> <p>○ 무대이미지(2) - 기존공연사진</p>  </td> </tr> </table>	<p>○ 무대이미지(1) - 기존공연사진</p> 	<p>○ 무대이미지(2) - 기존공연사진</p> 
<p>○ 무대이미지(1) - 기존공연사진</p> 	<p>○ 무대이미지(2) - 기존공연사진</p>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무용 관객 확대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어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관람, 청소년들의 유림에 대한 학문적 흥미, 무용 전공자 및 관계자들의 작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객석 점유율 80% 달성했다. ○ '유교'라는 전통적인 소재의 독창적 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초반에 등장하는 제의(祭儀)의 춤은 유례없는 형식으로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대감댁의 대문을 여는 영상씬에서부터 제사를 형상화한 격조 있는 유가의 춤으로 호평 받았다. - 현대적인 해석이 더해진 비주얼로 무용 공연의 시각적 만족을 이끌어내면서도,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이어지는 '유교'라는 사상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였다. ○ 한국춤의 절제미와 흥을 담은 공감도 높은 작품이라는 호평으로 속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한국 창작 무용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좋은 평가들을 바탕으로 기개, 지조 등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선비 정신을 표현한 2편 '유림-천주 여죄균'을 제작하여 한국 전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무용 3 조윤라발레단 : 가족발레 <스크루지>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조윤라발레단		
공연명	가족발레 <스크루지>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
실무자명	전흥기	E-mail	jun7958@hanmail.net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조윤라발레단」은 새로운 작가정신으로 창작발레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레퍼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발레의 기본테크닉 기술을 성실히 쌓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아카데미즘을 통해 백색발레(Ballet Blanc)의 순수함과 예술성 추구를 목표로 클래식 발레의 테크닉과 창작발레를 함께 병행하는 우리 무용계의 모범적 전형으로 평가 받아왔다. 조윤라 발레단은 한국 발레계에서 흔치않은 창작발레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며, 2004년부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해설이 있는 발레 - 발레이야기> 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관객과의 만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2.13.~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발레단 주최) 창작산실(발레)지원사업 우수 작품 제작지원 선정 ○ 2014.12.24.~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창작산실 재공연 선정 ○ 2015.12.11 춘천시문화재단 초청공연 ○ 2017.10.28.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작 선정-김천 ○ 2018.12.08.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작 선정-의정부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4.03.~04.04. 아르코예술극장, 한국현대춤작가12인전 ○ 2021.04.10.~04.11. 아르코예술극장, 발레블랑40주년 기념공연 ○ 2022.12.21.~12.22 나루아트센터,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선정공연 ○ 2023.05.2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제29회 대전무용제 개막초청공연 ○ 2023.10.27. 아람누리 극장, 고양국제무용제 초청공연 		
공연영상	https://youtu.be/VwP8LpwaKcc?si=yDIplZQ0dvYSD04G		
참여인원	총 50명 (출연진 29명 / 스태프 21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 연령층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p style="text-align: center;">객석규모</p>	<p style="text-align: center;">무대면적</p>	<p style="text-align: center;">무대시설</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p>무대너비(10 m)×높이(8m)× 깊이(12m)</p>	<p>세트바톤7개, 조명 바텐 수 3개, 덧마루 수 등 필수 시설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 및 제작의도</p>	<p style="text-align: center;">고전의 새로운 탄생, <스크루지>가 창작 가족발레로 다시 태어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발레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는 대중과 공감하는,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작품의 완성도와 미적 감각을 한 단계 높이는 조윤라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발레단 주최) 창작산실 제작공연으로 선정, 초연 이후,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창작산실 및 초청공연으로 으로 선보인 컨템포러리 발레작품이다. 높은 수준의 테크닉과 표현력으로 각광 받는 주역 무용수들의 출연과 찰스 디킨스의 고전 <크리스마스 캐롤>을 모티브로 '나누고 베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명품 가족 발레로 다시 태어나 한국 창작발레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 수많은 발레공연 중에 이렇다 할 창작발레 레퍼토리가 없는 우리 무용계 현실에서 볼 때 우수레퍼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발레적인 색채의 춤 언어로 표현되는 고전소설을 그동안 클래식 발레 위주의 흐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색다른 컨템포러리 발레로, 최고의 무용수의 참여로 수준 높은 기량과 안무가의 세련된 구성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 또한, 이번 스크루지 작품은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보편적인 춤 언어와 스토리에 맞는 상황묘사에 중점을 두고 안무하여, 한국창작발레가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컨셉 및 주제</p>	<p style="text-align: center;">혹독한 삶 속에 찾아온 따뜻하고 특별한 하루, 그 속에서 찾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통의 의미를 담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작품의 스토리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1843년 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모티브로 크리스마스 본연의 의미인'나누고 베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아이들에게 곧잘 들려주는 이야기로, 교회와 학교 등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영화,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되고 있지만 창작 발레로는 생소한 작품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안무가이자 예술 감독인 조윤라만의 남다른 작가정신으로 한국 창작발레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및 특징</p>	<p>1) 안무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해설이 있는 발레 등, 발레의 대중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오면서 친숙하고 보편적인 발레작품들을 선보이고 싶었다. 겨울이면 관례적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수도 없이 보아왔던 관객들에게 친숙하면서 색다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몫 또한 예술가의 의무라 생각한다. - <크리스마스 캐롤> 은 1843년에 발표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로, 그 후 해마다 발표된 5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제1작이며 디킨스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원작은 어두운 이야기의 연속이지만 이번 무대는 발레 대본에 잘 어우러지는 현대적인 각색으로 대중들에게 또 다른 기대와 재미, 예술적 조합으로 대중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작품이다. 		

구 분	내 용
	<p>2) 작품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브), 구두쇠 스크루지가 하룻밤 꿈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보게 된 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롤로그 2.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정의 춤 - 노동자의 춤 - 스크루지 연인의 춤 - 스크루지와 연인의 사랑의 춤 - 스크루지의 춤 3.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루지를 조롱하는 마을 사람들의 춤 - 악령들의 춤 4.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루지의 죽음 - 애도하는 춤 5. 에필로그 <div data-bbox="443 983 1331 1314" data-label="Image"> </div> <p>3) 공연수정 계획 등</p> <p>3-1) 수정보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연 당시, 단순히 모두가 알고 있는 기존의 스크루지 이야기를 발레로 바꾸는데 그 치기 보다는 스크루지의 내면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져서 단순히 스크루지를 즐기러 온 관객들에게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 재연 시에는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디벨티스망 부분을 삽입하여 다양한 테크닉과 구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크리스마스에 맞는 가족 발레 레파토리로 선보인다. - 또한, 세트가 크게 있어서 군무진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세트를 사용하였는데 세트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무용수들의 움직임 반경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움직임에 관객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 쓸 예정이다. <p>3-2) 무대구성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프롤로그와 1막과 3막은 한 무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대 중앙의 철재 모형물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전의 축제 분위기 그러나 무대 하수에는 스크루지 사무실 (소외 어둠 추위) 상수에는 크로세스의 작고 초라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스위트 홈 (사랑 축복 밝음)으로 대비를 준다. 상수, 하수, 중앙무대의 분리를 통하여 공간적 개별성을 통하여 극의 전환점을 표현한다. -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동선은 원형의 무대와 무대 바닥을 동시에 이용하기도 하고

구 분	내 용
	<p>무대의 높낮이를 통하여 또 다른 분리된 느낌의 춤을 춘다. 무대의 다리막을 벽처럼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막 스크루지 집안 - 환상 장면 / 말리와 악마들의 등장은 벽으로 표현된 다리 막의 낮은 계단의 느낌의 무대 세트를 통하여 환상적인 느낌 연출과 어린 시절의 느낌 등을 표현한다. 계단 끝을 통한 후, 귀엽고 아름다운 남녀 무용수가 스크루지를 지나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즐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인무가 펼쳐진다. - 3막은 1막 무대 장치 이용 / 이때는 스크루지 사무실도 밝은 조명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장면 표현으로 마을 사람 전부와 크로세스 가족 모두 함께 펼치는 군무와 크로세스 딸의 결혼식의 장면에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인무가 펼쳐진다.
기대효과	<p>1) 사업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재공연을 통해 조윤라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 창작발레 발표작품이 적은 현실에서 새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발레작품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 기존 크리스마스 발레작품은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고자 한다. - 발레만의 움직임뿐 아니라 연기, 마임, 비보잉을 통한 융합적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볼거리를 선사함으로써 발레의 확장성을 관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p>2) 해당분야에 대한 기여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작품들도 많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는 2013년 창작산실에 선정되어 좋은 공연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공연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재공연 됨으로써 일반 관객이 창작산실이 좋은 작품을 선보인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된 좋은 작품이 꾸준히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에 선정되어 좋은 작품을 지역민에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 공연예술과의 공생을 확장하길 기대한다.

무용 4 사단법인 제주빌레앙상블 : 어머니 달의 신화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사단법인 제주빌레앙상블		
공연명	어머니 달의 신화		
단체 소재지	제주	홈페이지	http://fortecompany.quv.kr/
실무자명	박성은	E-mail	ilo0oali@naver.com
		연락처	064-755-1215
단체소개	<p>○ (사)제주빌레앙상블</p> <p>- 제주빌레앙상블은 서양음악과 국악 전공자들이 마음을 모아 창단한 예술단체이다. '제주적·한국적·세계적'이어야 한다는 목표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 개발과 연주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 단체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기획 공연과 월드뮤직콘서트 <바람의 섬>, 음악극 <스페이스크루즈>, 음악극<애기바당>, 음악극<자청비>등 완성도 높은 제주브랜드 공연 제작을 통해 제주의 세계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p> <p>○ 무용단 نوم스</p> <p>- 한국무용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무용, 음악, 미디어아트 융합등 장르의 한계를 벗어나 실험적인 무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의 젊은 무용수들과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대전 문화예술 공모사업 차세대 단체로 선정, 2회에 걸친 대전 무용제 대상과 전국무용제 동상, 2013 스프링페스티벌 무용부문 선정, 2019년 해외 일본 교토/오사카 초청공연등 국내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1주~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1주~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주~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2주)		
공연실적	<p><신청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0.29.(토) 2회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공연장 대전 '무용단 نوم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대전-제주-일본 교류공연) ○ 2023.04.29.(토) 2회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공연장 대전 '무용단 نوم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대전-제주-일본 교류공연) ○ 2023.09.10.(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빌레앙상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제주-대전-일본 교류공연)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주빌레앙상블 × 무용단 نوم스 협업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2. 16.(토) 2회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극 자청비> - 2023. 09. 10.(일) 2회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무용극 어머니 달의 신화> - 2023. 05. 13.(토) 2회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극 스페이스크루즈> 		
공연영상	https://youtu.be/iQo-k4TQ3qI		





구 분	내 용		
참여인원	총 38명 (출연진 21명 / 스태프 17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30~60대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2m)×높이(8m)×깊이(12m)	조명 바텐, 덧마루, 샤막, 빔프로젝터, 댄스플로등은 공연장 상황에 맞게 조정. 음향/조명/무대영상 시스템은 외부 협력 업체가 운용
기타 사항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기획 및 제작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사랑이란 울타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갖고자 함. - 효 사상과 가족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무용콘테츠를 브랜드화하여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함. - 무용단체와 음악단체의 협업 작품으로 생동감 있는 라이브 연주와 안무로 감동을 극대화 함. 		
컨셉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을 인생으로 달은 어머니로 상징화 한 작품으로 현대인들에게 사회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 		
내용 및 특징	<p>1) 작품 내용</p> <p># 굳은 땅, 검은 하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사랑 앞에 눈물처럼 녹아내리는 언 땅. - 차가운 달의 뒤편 새 한 마리 그림자로 날아간다. 굳은 땅 검은 하늘 어머니 빛을 주세요. 삶을 주세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p># 달그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 위에 달은 푸른 바다 따사로운 햇살은 달 위로 날아든 나비 나비가 무서워 태양의 뒤에 숨어버린 가엾은 어미 달그림자에 갇힌 어미 그 속의 보랏빛 나그네 죽도록 그리운 달의 신화 어머니 <p># 어머니-달의 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이 분다, 파도가 친다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꽃잎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결국 땅속으로 파묻혔다. 목숨같은 비 내리다 다시 흐른다. 깊은 땅속에 스며드는 어미의 살점들 다시 저 푸른 숲속에 이슬과 함께 맺히는 무지갯빛 열매들 		

구 분	내 용
	<p>2) 주요장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롤로그 (회상) # 01. 어머니의 기도(달의 기도 I) # 02. 눈먼 세상 # 03. 검은 그림자 # 04. 어머니의 기도(달의 기도II) # 05. 은인이 인연으로 # 06. 타오름 달, 덩 덕 콩야 # 07. 달그림자 # 08. 어머니 향기 # 09. 달의 눈물 # 10. 달로 가는 길 #. 에필로그-달의 기원 <p>3) 공연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브 연주와 안무, 융복합적인 무대영상과 기술이 뒷받침하면서 생동감 있는 무대를 만들어 냄. - 연출, 음향·조명, 무대기술, 무대영상 및 운용, 무대제작등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 실현 가능. <p>4) 공연 수정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라이브 연주로만 국한하지 않고 MTR을 조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음악을 제작. - 무용팀에게는 공연에 쓰일 음악을 미리 녹음하여 보내주고 연출가와 안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무 및 동선 구상. - 연출, 시스템(무대, 음향, 조명, 영상)등 작품이 공연장에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관객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 음악과 무용으로 표현을 전달하기 부족한 부분은 영상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작품의 의도와 흐름을 이해하게 하고 몰입도를 높임. - 공연장 무대·장치등 상황에 따른 무대디자인과 소품 준비.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는 섬이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공연유통에 큰 제한이 있다. 예술인(단체)들은 재정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예술인들의 지역 한계성 탈피, 시장 부문에서의 예술 활동 확대, 국내외 진출 등 도내 공연계의 다양성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청년 예술인들에게 적극적인 예술 활동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발표 기회 확대 및 예술 활동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에 몰입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작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통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무용 5 본댄스컴퍼니 : 기억의 파편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본댄스컴퍼니		
공연명	기억의 파편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orndance https://www.facebook.com/wonsun.choi.524
실무자명	정혜진	E-mail	lilyfive@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본(本)댄스컴퍼니 (Born Dance Company)는 최원선 예술감독에 의해 2006년 미국에서 인터내셔널 댄스프로젝트 그룹으로 다문화적 실험 무대를 선보이며 시작하였다. 고유한 한국문화의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동서양 문화배경의 특수성과 다문화적 창작소재를 적절히 가미하여 감각적 무대를 선보이며 미국의 헐리웃 Unknown Theatre 와 포드문화재단 Ford Amphitheatre, UCLA, UCR, Anatomy Riot 등 전문 예술무대에 초청받아 한국 춤문화를 미국주류사회에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이후 국내에서도 세계무용축제, 한국공연예술센터 새개념공연예술, 창무예술원 내일을 여는 춤, 서울국제즉흥춤페스티벌, 서울댄스플랫폼, 융복합공연예술축제,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선정작 외 수많은 무대에 초청받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많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과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실험적이고 예술성 짙은 작업을 이끌어내며 끈임없이 변화하고 관객과의 적극적인 공감을 시도하는 전문예술단체이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2주, 3주, 4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0.03.~10.05.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테이지66, 기술융합예술공연 ○ 2020.01.30. PAF예술상 춤작가상 수상 ○ 2020.11.08.~09. 서울국제무용제 초청 온라인 공연 진행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2.29., 진주전통예술회관, 본(本)댄스컴퍼니 「화양연화」 ○ 2023.06.29.,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본(本)댄스컴퍼니 「그림자 일렁이다」 ○ 2023.02.28., 국립국악원 우면당, 한국춤 백년의 유산 II 「산조- 그 흩어진 가락의 춤걸」 ○ 2022.06.24.,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본(本)댄스컴퍼니 「심획」 		
공연영상	https://youtu.be/1FYk7ualBKE		
참여인원	총 30명 (출연진 10명 / 스태프 20명)		
소요시간	총 6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일반인 (10대~60대) 및 무용, 융복합 예술 관련 종사자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약) 무대너비(12m) × 높이(8m) × 깊이(14m)	세트 바텐 5개, 조명 바텐 7개, 댄스플로어, 프로젝터 (필수 시설)
기획 및 제작의도	<p><기억의 파편>은 한국적 컨템포러리 창작무용을 선도하는 본(本)댄스컴퍼니의 특유의 움직임 기법과 세련된 무대예술 표현으로 회화적 이미지화를 이룬 최원선 예술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p> <p><기억의 파편>은 피로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거울처럼 투영하여 삶의 거친 숨소리를 예술적으로 표상화한 작품이다. 안무가 최원선의 주된 창작 철학인 '인간의 감성 표현'이라는 주제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감정과 인식이 어떻게 몸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탐구와 그 심미적 의미를 담은 이 작품은 현대의 삶 속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의도하였다.</p> <p>2019년 초연시, 한국 창작춤과 인터랙티브 뉴미디어 아트의 결합으로 춤공연의 색다른 감각적 시각화를 제시한 돋보이는 연출, 세련된 무대, 춤과 기술 융합의 조화로운 합일을 이룬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고, 이어 2019년 PAF 예술상 춤작가상 수상과 2020년 세계 무용축제에 초청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관객에 의해 다시 보고 싶은 무용작품으로 회자되고 있다.</p> <p>사실, 초연 이후 2020년 세계무용축제에 초청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공개되어 생동감과 현장성이 중요시되는 실시간 움직임과 미디어아트의 결합이라는 <기억의 파편>만의 특이점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야 했다. 이에, 이번 지원사업의 작업을 통해 원작의 장점들을 살리고 다시금 수정, 보완하여 본(本)댄스컴퍼니만의 독특한 춤 색채를 드러낸 대표 레퍼토리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 무대에서 생동감 넘치는 체험으로 교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공연자, 관객)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으로 치유하고 인간애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하게 될 것이다.</p>		
컨셉 및 주제	<p>○ 작품 내용</p> <p>심리치료사 데보라 킹의 저서에서 상처의 기억이 육체에 각인된 트라우마 환자들의 임상치료 사례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상처받은 몸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자기애와 치유의 에너지는 살아나기 시작한다. 몸이라는 저장소에 저장된 갖가지 파편들, 그것들을 끌어안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p> <p>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 앞에서 무력하며,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며 살아가지만, 상처와 고통에 무감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깊은 병을 만든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만연한 세상이다. 무수한 상처의 기억들이</p>		

구 분	내 용
	<p>파편처럼 몸에 박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험, 트라우마. 그 고통은 지속적이고 격렬하며, 종종 숨이 멎을 것 같은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상처받은 몸. 이 작품은 그 몸의 내부로 따라 들어가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는 순간을 재현한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와 격려이다. 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프고 지난한 과정이다. 그러나 내면의 나를 만나면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여전히 상처는 거기에 남아 있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대면하며 변화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p> <p>현대인의 몸에 각인된 '내적 고통과 상처', 그리고 '타인의 왜곡된 시선과 갈등'과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는 결렬한 몸짓',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감정과 직면하여 이를 초월하려는 '자유의지'와 '치유'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다음의 7장으로 나누어 장면 연출이 진행된다.</p> <p>○ 장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 일그러진 군상 ■ 2장 - 트라우마와 호흡곤란 ■ 3장 - 상처와 출혈 ■ 4장 - 왜곡된 시선과 부서진 영혼 ■ 5장 - (몸에 새겨진) 기억의 파편들과 대면 ■ 6장 - 자기애와 치유의 에너지 ■ 7장 - 몸의 기억과 군상의 현존 <p>(위의 7개 장의 세부 주제는 초연을 기반으로 보완 정리된 것임.)</p> <p>○ 장면별 참고 이미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연 사진. <기억의 파편> 1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연 사진. <기억의 파편> 3장</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연 사진. <기억의 파편> 4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연 사진. <기억의 파편> 6장</p> </div> </div>

구 분	내 용
내용 및 특징	<p>공연 내용 및 특징</p> <p><기억의 파편>은 한국춤의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창작을 선보이는 본(本)댄스컴퍼니만의 독특한 춤 색채를 드러내며 다채로운 몸짓으로 미감을 자극하고, 과학 기술의 다양한 접목과 무대표현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의 의식이 되는 춤 오늘의 사회가 급속한 문명의 발전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거의 모두 어떤 형태의 육체적·정신적 상처 곧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무관심과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젠 적극적인 치유(治癒)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기억의 파편>은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의 고통에 주목하여, 감정과 인식이 어떻게 몸을 침윤해 들어가는가를 탐구하여 예술적 시각화를 이룬 작품이다. 몸에 새겨진 아픈 기억들에 집중하여, 그 상처의 모습들을 무대 위에 시청각적 표현으로, 예술 경험으로 치유되는 하나의 의식처럼 관객에게 다가갈 것이다. ● 다채로운 춤과 테크놀로지, 미디어 아트와의 조화 주제 의식의 표현으로 몸속 깊숙이 각인된 강렬한 기억과 그를 벗어나려는 몸부림, 이는 몸에 집중한 호흡과 응집된 기를 이용한 한국춤 기법에 기인한 독특한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테크놀로지와와의 조화로운 시각화를 통해 펼쳐지는 스펙타클한 장면의 연출은 시류에 부합하는 융복합 무대공학적 춤표현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특히, 실시간 동작 추적, 동작 감지 및 반응 기술, 그리고 이것들과 연동되어 춤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인터랙티브 기술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협업은 <기억의 파편>이 전하는 인간의 내적 고통과 트라우마라는 다소 무겁고 추상적인 주제를 아름다운 무대예술로의 승화시켜 보여준다. <p>공연수정 계획</p> <p>초연시 작업 경험을 근간으로 여러 가지 안무, 연출 및 기술측면에서 수정 보완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연시 관객과의 공간적 긴밀감 조성 and 생동감 전달에 중점을 두고 소극장 무대와 관객수를 제한하였으나,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관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중,대극장을 선택하고자하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술적, 기술적 표현기법을 다변화하여 전작의 우수성을 살리되 현실적인 구체화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초연시 각 장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개념을 기본으로 작가와 함께 좀 더 장면을 세분화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켜 그 의미적 표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씬별 개성을 부여하고 그에 부합한 움직임 구현과 표현성을 증대하도록 할 것이다. 3. 초연시 각 장이 상징하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달리해 표현하였던 것과는 달리, '트라우마와 자기애를 통한 내적 치유'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각 장의 연결성을 긴밀하게 재구성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간구하도록 하겠다.

구 분	내 용
	<p>4. 무용 표현에 중심점을 두고 무대 공학적 기술의 측면을 가미한 작품임에, 초연시 사용된 여러 가지 실험적 기술과 매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춤표현과 조화를 이루는 활용과 춤 예술 표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가적 방안을 연구하여 새롭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p> <p>5. 그 외의 제작 스텝과 함께 참여하는 무용수들과의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초연시 미흡했던 사안들을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p>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춤 움직임의 미학적 표현과 트렌디한 현대적 시공감이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치밀한 구성과 탄탄한 문법의 연출, 깊이 있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주제 의식은 다년간의 개성 있는 창작 작업을 펼쳐온 최원선과 본댄스컴퍼니의 춤 표현을 통해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애잔하게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장면들로 연출된 몸에 각인된 트라우마와 자기애를 통해 이를 극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억의 파편>은 작품 전체가 일련의 '정신적 치유(治癒)의 의식'과 같아 관객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힐링하는 특별한 정서적 체험행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로써 멀게만 느끼던 무용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일상으로부터 감성적 일탈을 위해 예술극장을 찾는 문화예술 향유층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미디어와 기술, 춤의 융합'과 '춤의 표현영역의 확장'은 최원선 감독이 2006년 <Womb Revisited> 창작시부터 이어온 실험적 창작의 탐구 주제이다. 이 다년간의 연구는 인간의 신체 표현과 인터랙티브 기술을 이용한 움직임 인식, 실시간 연동되어 나타나는 미디어아트와 춤 표현의 조화로 대변되는 기•예의 융합이 <기억의 파편>을 통해 완성도 있게 응집되었다 하겠다. 이는 총체예술로서 무용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화를 통한 추상표현의 구체화를 이룬 것으로 예술춤과 기술의 창의적 융합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테크놀로지와 비주얼아트, 미디어아트 등 타 장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수용하는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본(本)댄스컴퍼니는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의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품의 수출 또는 해외 업계와의 교류는 그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을 때 우수한 퀄리티를 지닌 작품의 레퍼토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본(本)댄스컴퍼니가 지속해온 안무 및 창작 작업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에 <기억의 파편>이 본(本)댄스컴퍼니의 대표작이자 한국무용의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세계무대에 우리 작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대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무대까지 고려한 한국 창작춤의 레퍼토리 개발로 콘텐츠 자체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추후 활발한 국제교류 작업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용 6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 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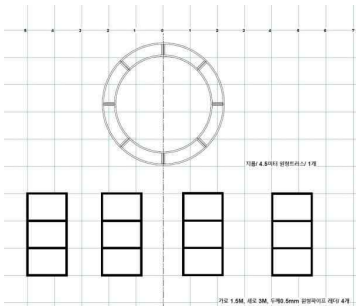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공연명	Pool		
단체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instagram.com/kimsunghoon_dance_project
실무자명	국지수	E-mail	musee012@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2017년에 창단된 김성훈 댄스프로젝트(Kim Sung Hoon Dance Project)는 블랙코미디를 이용한 휴머니즘적인 작품들을 지향하며, 인간 본연의 움직임을 무대화하는 작업요소를 중요히 여기는 창작 철학을 바탕으로 다소 모호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들을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대표 안무가 김성훈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Akram Kahn Dance Company와 한국 현대무용단인 LDP(Laboratory Dance Project) 무용단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유럽 감성과 한국 감성을 적절히 '크로스오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무가 김성훈은 국내 및 중국, 미국, 유럽의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활동과 영화, 드라마, 뮤지컬, 대중 음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분야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의 창작 영역을 넓히고 안무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조동>(2022), <Pool>(2019), <Green Eye>(2017), <No Film>(2014), <Black Comedy>(2009) 등이 있다.</p>		
공연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2주, 3주, 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1주, 2주, 3주, 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주, 2주, 3주, 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2주, 3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실적> 2022.8.13. <Pool> 춘천 공연예술제, 춘천인형극장 대극장 2022.8.26. <Pool> 대전 춤 작가 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 2022.9.21 <Pool> 제15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해비치 다이아몬드</p> <p><단체 실적> 2021.3.19.-20 <Mindseeker> 김성훈댄스프로젝트 기획공연 안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22.2.5.-6 <조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2.8.13. <Pool> 춘천공연예술제, 춘천인형극장 대극장 2022.8.26. <Pool> 대전춤작가전,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 2022.9.21 <Pool> 제15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해비치 다이아몬드 홀 2023. 7. 20-22 <일무> 서울시무용단 공동안무, 미국 뉴욕 링컨센터 내 데이비드 H 코크 시어터 2023. 9.7-10 <GRIMENTO>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시즌 싱크넥스트23 정구호X김성훈 2023. 10.22 <조동>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공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3. 11. 4-5 <Mantis>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청 그레이룸</p>		
공연영상	https://youtu.be/RvixzgT979k		
참여인원	총 17명 (출연진 8명 /스태프 9명)		

구분	내용		
소요시간	총 5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일반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면적 무대너비(11m)×높이(5m)× 깊이(11m)	무대시설 검정 댄스 플로어
	기타 사항		
기획 및 제작의도	김성훈 댄스프로젝트는 본 사업을 통해 전국 지역 공연장과의 네트워킹, 지역 관객과의 소통, 지역 문화 예술 유통 방식을 경험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컨셉 및 주제	<p><Pool>은 우리사회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는 작품이다.</p> <p>우리속담에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물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성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물이 썩는 것처럼 도태된다는 것을 속담이 대변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 않아도 사회가 인간을 길들이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길들여진다는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사회에 길들여진 탁해진 정신과 마음의 도태된 인간 고인 물이 과연 사회(흐르는 강)에서 주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한다.</p>		
내용 및 특징	<p><공연 내용> 사회의 흐름에 무거움을 안고 흘러가는 무감각한 사회. 한없이 가벼운 것 속에 살아가는 무한정한 무거움. 끝엔 우리도 당신이다. 우리가 있다. 사회가 바라보는 약자의 시선을, 상대적 약자가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주목한다. 개인은 주체이고, 주체가 모여 사회를 이룬다. 사회는 우리다.</p> <p><공연 특징> <Pool>은 2019년 초연된 안무가 김성훈의 대표 작품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명의 무용수 8들의 각 캐릭터별 스토리가 있는 유니버스 구성 또한 엿볼 수 있다. 각 장별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시각적 미장센의 조화가 관객들에게 한편의 무용극을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p> <p><공연수정 계획> 지난 작업들에서 자주 이용한 연극적 요소와 유니버스식 이야기 전개 또는 무용수 개인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을 더 강조하고, 작품의 무대 연출을 통한 작품의 메시지와 유기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몸'으로서 존재하는 무용수, 감각적 시노그래피, 필름 느와르적인 암울하고 강렬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위트있게 풀어 나가려 한다. 재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제스처를 리서치하여 움직임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관객들에게 명확한 장면 해석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작업에서는 장면의 전환마다 마치 책의 목차를 넘기듯 관객으로 하여금 장의 전환을 쉽게알 수 있게 암전 상태로 조명의 규칙적인 변화를 두었으나, 이는 장면의 구분이 명확하여 관객들이 장면전환을 예상할 수 있게 하였고, 작품의 연결성이나 집중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재연에서는 음악, 움직임과 같은 다른 장치로는 장면 전환을 구상 보완할 계획이다.</p>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단체와 지역 공연장과의 협력 방안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p> <p>지역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 유통방식을 경험하고 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장으로의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p> <p>지역 관객에게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공연예술의 다양성을 소개하여 순수예술로 지역관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p>

무용 7 최상철 현대무용단(댄스 프로젝트) : <그들의 논쟁> & <Chaos>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최상철 현대무용단(댄스 프로젝트)		
공연명	<그들의 논쟁> & <Chaos>		
단체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
실무자명	라세영	E-mail	seyoung@gmail.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1992년에 창립된 최상철 현대무용단은 멀티미디어와 무용의 혁신적 결합으로 공연 예술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까망천사>는 무용과 영상 작업의 진보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 제 18회 무용예술상에서 안무상과 음악상을 수상한 <논쟁>은 2011 PAMS CHOICE에 선정되었다. 이후 이스라엘 수잔 델랄센터, 아따칼라리 인디아 비엔날레, 멕시코 세르반티노 페스티벌 등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꾸준히 초청받았고, 한국 무용단으로는 처음으로 캐나다 Cinars 공식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p> <p>최상철 현대무용단은 무용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는 시도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와 동시대적 주제의식을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융합을 통한 표현으로 무용의 문화적 경계를 새롭게 확장하고 있다.</p> <p>이런 면을 반영한 다른 대표작 <Chaos>는 2017년과 2018년에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올해의 신작과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작으로 최우수작품상과 무대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작품 2019년 워싱턴 초청 공연에서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p> <p>2023년에는 <그들의 논쟁>이 대한민국무용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대 삶을 반영한 예술철학과 안무의 완성도를 입증하였다. 특히 이 작품은 일반 관객들의 엄청난 호응을 끌어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현대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상철 현대무용단의 최근 작품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작품, <Chaos>와 <그들의 논쟁>으로 구성하여 일반 관객에게 우리나라 전통적 정서와 우리 무용수의 뛰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펼쳐보이고자 한다.</p> <p>최상철의 작품들은 용감하게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파헤치며, 어두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제공하고, 터무니없는 것에 대한 진지한 조롱을 표현하며, 현대사회의 개인이 느끼는 존재적 공허를 반영한다. 그의 안무를 통해 그는 우리 시대의 집단적 고민에 빛을 던지며, 청중들과 깊은 수준에서 공감한다.</p>		
공연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2주, 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08. 2023 대한민국무용대상 <그들의 논쟁> 대통령상 수상 ○ 2023.09.20. 강동예술인페스티벌 <그들의 논쟁> ○ 2023.07.01. 군산춤축제 <그들의 논쟁> ○ 2019.08.18. Onstage Korea, Washington John F. Kennedy Center <Chaos> ○ 2018.06.08.~06.09.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Chaos> ○ 2018.03.10.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18 최우수작품상 <Chaos> ○ 2018.02.28. 사)창무예술원 제 24회 무용예술상 무대예술상 ○ 2017.12.14.~12.1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Chaos>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12.0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3 대한민국무용대상 결선진출작 <그들의 논쟁> 2. 2023.09.20.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강동예술인페스티벌 <그들의 논쟁> 3. 2023.07.01.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군산춤축제 <그들의 논쟁> 4. 2021.11.13.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 태화강춤축제 <눈물의 무게> 		

구 분	내 용		
공연영상	<그들의 논쟁> https://vimeo.com/894331334?share=copy (Password 1208) <Chaos> https://vimeo.com/897801850?share=copy (Password 1208)		
참여인원	총 17명 (출연진 13명 / 스태프 4명)		
소요시간	총 75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주관객층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다양한 계층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2m)×높이(12m)×깊이(12m)	조명 바텐 수: 12개(무대 사이즈에 따라 변경 가능) Black Cyc, Rear Screen 세트 및 소품: 아래 기타사항 참조
기타 사항	<그들의 논쟁> 1. White 사각 댄스 플로어  2. 의자 소품 6개  <Chaos> 1. 원형 트러스 1개 (지름 4.5미터)  2. 전동휠 10개 		
기획 및 제작의도	<그들의 논쟁> 안무가 최상철은 춤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들의 논쟁>은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불균형을 반영하면서 차이를 주장하려는 욕망을 상징하는, 전쟁 대신 논쟁을 제시한다. 특히 <그들의 논쟁>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논쟁과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책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작품은 논쟁이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기인되며, 이러한 논쟁이 어떻게 인간 상호작용과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새로운 안무적 시도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구 분	내 용
	<p><Chaos> 안무가 최상철은 해외 유학 시기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이 받는 서양적 영향과 그 본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었다. 귀국하여 활동하며 안무가로서 춤의 진정성을 탐구하며 다시금 한국적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용이 환경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무용의 현대화를 거쳐 가는 과정에서 그는 한국춤의 미학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전통춤의 확장성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 작품은 서구적 영향력을 벗어나 한국문화와 가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현대무용을 시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한국적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춤의 진정성을 탐구하며, 전통춤의 미학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 작품의 기획 및 제작 의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창조된 한국적 현대무용의 세계무대 진출이 또 다른 중요한 기획 의도였다.</p>
<p>컨셉 및 주제</p>	<p><그들의 논쟁> <그들의 논쟁>은 인간의 소통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여 의사소통의 부재와 그로 인한 오해와 오역이라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을 탐구하며, 이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해석하고, 합일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차이를 장애물로 그리는 대신, 이를 상호 이해와 합의로의 길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독특한 무용 서사와 다양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음 통해 갈등과 논쟁, 그리고 성장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장과 이해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작품은 논쟁이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논쟁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주제를 다룬다. 논쟁의 근원이 '다름'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논쟁의 관계를 탐색한다.</p> <p><Chaos> 작품의 컨셉은 작품의 컨셉은 혼돈의 시대와 질서의 탐색이다. 우리는 혼돈과 질서가 어우러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로 표현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낯선 세계를 탐색하고, 그 세계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은밀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작품은 또한 이 시대를 좌파와 우파, 안과 밖,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시와 비, 효용과 무용 등이 혼재하는 빅뱅 이후의 우주와 같은 카오스로 상징하며, 이를 통해 우주의 생성으로부터 인류의 탄생을 거쳐 삶의 질서와 균형이 찾아지고, 미래의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우리의 현실을 깊이 탐구하며, 새로운 시각과 깊은 사유를 제공한다.</p>
<p>내용 및 특징</p>	<p><그들의 논쟁> 이 작품은 논쟁이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논쟁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개념을 다룬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반영하며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낸 특징이 있다. 특히 논쟁과 갈등의 순간, 더욱 급변하고 고조되어 가는 갈등의 과정, 한국 사회 내에서 억제되어 누적되는 응축된 감정,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긴장감 등 강렬한 감정과 긴장감을 표현하는 움직임, 음악, 조명이 어우러져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안무가는 이러한 격렬함을 표현하기 위해 2010년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초연된 <논쟁>에 새로운 서사구조를 덧입히고, 모두 남성 무용수를 캐스팅하여, 숨막히도록 다이내믹하고 극한의 격렬한 움직임으로 우리 시대의 공유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p> <p>장시간 국내외 관객을 위한 현대무용 레퍼토리 작업에 대한 고민 끝에 30분 버전으로 새롭게 완성된 작품이라 수정 계획 없음. 이 작품은 에피소드들의 - 빅뱅 장면, 사과놀이하는 아담과 이브, 갈등과 분열, 질서와 관계의 균형, 그리고 뱅뱅(Bang-Bang)과 유토피아로 향하는 One Way Ticket, 그리</p>

구 분	내 용
	<p>고 그다지 의미 없는 혁명들- 병치를 이용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다.</p> <p>혼돈(Chaos)이라는 주제는 움직임과 조명을 이용하여 환상적으로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다. 작품 속 붉은색 이미지는 물질, 태양, 5차원의 고주파, 신의 신성과 동물의 수성을 나타내며 때로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도 등장해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혁명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p> <p>혼돈의 표현을 위한 새로운 안무적 시도로 한국 전통 움직임의 절제미와 대중문화에 기반을 둔 스트리트 댄스의 한 장르인 현대적인 크럼프 움직임의 대비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익숙함'과 '낯설음'을 유도하여 혼란의 도구로써 능숙하게 활용하였다. 무용수들 간의 이성적이거나 암시적이지 않은 규칙에 따른 단순 질서에 의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며, 반복성, 연속성, 점진적 발전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다. 완전히 다른 움직임의 만남을 표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무가이자 <Chaos>의 음악감독인 김재덕의 음악 협업은 전통 음악을 현대적 퓨전으로 변화시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음악적으로도 경험하게 만들었다.</p> <p>한국춤에 내재되어있는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현대적 기법 또는 표현으로 움직임의 미니멀화를 통해 단순미, 여백의 미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Chaos - 창세기의 한 구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오프닝 장면은 단색 화려한 붉은색 조명, 물속 혹은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무용수의 나신, 알 수 없는 시공간 영역에 존재하는 느낌을 일으키는 장면 등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조명디자인을 통해 환상적으로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다. 이 작품은 조명 디자인상과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여 그의 새로운 시도를 인정받았으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공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외 무대에 초청받았고 미국 무용 비평가인 카멜 모건은 이 작품을 매혹적이라 평가(CriticalDance, Carmel Morgan, 2019. 08. 23)한 바 있다.</p> <p><공연 수정 계획></p> <p><그들의 논쟁>: 장시간 국내외 관객을 위한 현대무용 레퍼토리 작업에 대한 고민 끝에 30분 버전으로 새롭게 완성된 작품이라 수정 계획 없음.</p> <p><Chaos>: 원작은 공연 시간 60분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번 투어에 선정이 되면 더블 빌로 두 가지 작품을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30분 작품 시간을 수정할 계획</p>
<p>기대효과</p>	<p>한국 현대무용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상철 현대무용단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각종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세계 예술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현대무용의 세계적인 입지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작품을 통하여 세계 유수 Festival 및 공연 관련 플랫폼과 논의 중에 있으며, 국내 공연에서도 전략적 접근을 통한 홍보와 적극적 관심 유도로 국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전국문화예술연합회 등과의 협력 사업을 모색 중입니다.</p> <p>이 전 공연들을 바탕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다시금 우리나라 무용 관객층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평균 30명 이상의 참여 예술가, 평균 유료 관객 점유율이 85% 이상이었으며,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술가로서, 관객이 없는 예술가의 무대가 아니라 관객이 다시 찾는 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현대무용의 창작 방향과 세계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한국적 전통성과 주체성에 근거한 국내외적 관심을 유도할 것입니다.</p>

무용 8 김남식&댄스투룹-다 : 가족 무용극 <내 이름 아시죠?>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김남식&댄스투룹-다		
공연명	가족 무용극 <내 이름 아시죠?>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72278101298
	실무자명	E-mail	frida1219@hanmail.net
연락처		02-537-9282	
단체소개	<p>○ 2010년 결성된 댄스 투룹-다는 창단 후, 일반 극장에서 탈피하여 미술관과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한 실험적인 공간 해석 위주의 무용 작업을 선보여 왔다. 2012년 싱가포르 진행된 아시아 4개국 초청공연에 참가하여 한국의 현대무용을 각인시켰으며 꾸준한 창작작업을 진행한 단체이다. 세계적인 문학(살로메, 지킬 앤 하이드, 태양의 돌, 시계 태엽오렌지 등)과 회화적 소재(반 고흐, 프란시스 베이컨, 마크 로스코, 말레비치 등의 작품)을 움직임으로 재해석하는 등 차별화된 예술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p> <p>2015년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마크 로스코 전시에서 주제공연 'Red Room'을 발표했고, 이 작품으로 2015년 ITALY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MEXICO 제35회 릴라 로페스 무용 페스티벌에 서는 등 2년 연속 멕시코에 초청돼 <태양의 돌>과 <붉은 방>으로 호평 속에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p> <p>2019년 SPAIN 마드리드 한국문화원에서 공연된 <살로메>를 통해 유럽 현지 관객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으며, 2022 한국과 콜롬비아 수교 50주년, 2023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사업에 참가하여 국제적 무용 단체로 자리매김 하였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2주,3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실적></p> <p>1) 2023.12.03.~12.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선정 <멕시코 3개 도시 순회공연></p> <p>2) 2023.05.12~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14회></p> <p>3) 2022.04.23~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12회></p> <p><단체 실적></p> <p>1) 2021.01.16.~17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호모모빌리쿠스> 공연영상 https://youtu.be/i_3syZlajXw?si=W-iXxfZR07dBZTn</p> <p>2) 2023.05.17.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kote 2023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선정작 <이제 너는 어디로 가든 봄이다!> 공연영상 https://youtu.be/4spMWLKlbnU?si=p7ymQG9PSff2tf4</p> <p>3) 2023.04.05. 마포아트센터 대극장/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쇼케이스 <해상명부도-해부학교실> 공연영상 https://youtu.be/L8cWGUH4Fwc?si=OldRN-zHdFRw7qHY</p>		

구 분	내 용		
공연영상	1) 2021년 초연 공연 <내 이름 아시죠?> https://youtu.be/59ugZWxlApk?si=UV1yX-WwLORyGJfy 2) 생명 존중 콘서트 청소년 마음 치유 프로젝트 <내 이름 아시죠?> https://youtu.be/NZ47c8Oy7vc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뷰)		
참여인원	총 32명 (출연진 20명 / 스태프 12명)		
소요시간	총 75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체 관람(초·중·고·일반·가족 동반)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6m) ×깊이(10 m)	-이동형셋트(테이블,간이의자, 긴 시이소 형태 셋트) -조명(무빙포함 조율가능) -바텐 수(12EA), -덧마루 수(30EA)
기타 사항	확정된 극장의 규모와 공연장 형태에 따라 무대시설에 필요한 조건들이 변경&조율가능함		
기획 및 제작의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 무용극 <내 이름 아시죠?>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 청소년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교육과학 기술부2015))라는 오명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의식을 전환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문제해결 수단의 부재인 현실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을 꾀하는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와 무용치료사,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 정신과 전문의들과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하여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에게 자기 삶의 의지를 충전해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컨셉 및 주제	가족애의 확인과 함께 혼자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 ○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혼자만의 의지로는 해결되지 못함을 이해시키면서 다양한 현실에서 비롯된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공연이 될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인증한 공연! 정신과 전문의와 예술과의 협업 프로젝트 청소년 자살에 대한 방지 프로그램 완성에 목적이 있는 공연.		
내용 및 특징	66개의 한국 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중학생은 2008년 256명에서 2010년 627명으로 2.4배 늘었으며 고등학생은 2008년 214명에서 476명으로 2.2배 증가하였다. ○ 그들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름이 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며 하나의 우주이다.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포기한 우리의 청소년들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찬란하게 꽃 피울 인생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싶다. ○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혼자만의 의지로는 해결되지 못함을 이해시키면서 다양한 현실에서 비롯된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공연이 될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인증한 공연!		


구 분	내 용
	<p>정신과 전문의와 예술과의 협업 프로젝트 청소년 자살에 대한 방지 프로그램 완성에 목적이 있는 공연이다.</p> <p><공연 수정 계획> 기존 공연에서는 소극장과 스튜디오 형태의 공간을 지향했으나 본 공연에서부터는 무대 공간의 크기를 500석 이상의 중·대 극장용으로 작품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출연 무용수들의 인원 증가와 무대 셋트, 음악적 구성을 풍부하게 하여 기존 무대 연출에서 나타낸 인물 간의 인과관계와 가족 중심의 스토리로 전개된다. -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대규모 군무진의 역동적인 군무 장면과 더불어 주요 움직임 장면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실시간 무대의 연출과 표현)를 사용하여 더 이야기의 집중력을 높인다.</p>
기대효과	<p>○ 지역 공연장의 공공성제고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본 유통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예술단체의 우수한 레퍼토리를 지역 공연장과 협력하여 부담되지 않는 관람료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 무용극 <내 이름 아시죠?>의 주제 또한 <가족과 사랑>라는 테마로 보편 사회적인 가치지향점을 가지고 있어 공연의 내용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의로 인해 지역 공연장으로서의 공공성, 공익적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지역 민간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및 동기부여 - 국공립 예술단체가 아닌 민간예술단체가 꾸준한 창작 무대를 세워나가고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충족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특히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일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김남식&댄스투룹-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시작하였지만, 창단 이후 14년 동안 무대와 관객만을 생각하며 어려움속에서도 좋은 무대를 만들어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결과가 본 사업의 공연을 통해서 보여질 때 지역에서 묵묵히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와 동질감,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p>



무용 9 서울경기춤연구회 : 명가월륜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서울경기춤연구회		
공연명	명가월륜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sgdance.imweb.me
실무자명	윤종현	E-mail	sgdance6797@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 단체소개 「서울경기춤연구회 는」서울 경기권에서 파생 발전된 전통춤을 계승하기 위해 무용가들이 모여 결성한 예술단체로 현재 ,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종목과 더불어 잊혀져가는 다양한 전통춤을 찾아 연구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전통춤에 뜻을 두고 모인 젊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우리 춤이 전승된다면 2세대, 3세대를 넘어 다음세대까지 우리 춤의 가치를 무한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단체이다.</p> <p>○ 핵심가치 - [서울경기지역의 춤 전승]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 지정되진 않았지만 역사적 지역적 ,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복원하여 우리 춤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통춤의 다음세대 육성] 전통춤의 가치를 다음세대에 전하는 것을 가장 큰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 서울경기 지역을 기점으로 발전된 전통춤을 계승하여 지역의 문화와 지형에 따른 독특한 특성을 연구하여 후학세대에게 전하고자한다. - [전통춤을 통한 사회공헌] 한국의 춤을 무용가에게만 향유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을 비롯한 문화취약계층(장애인,노인,아동 등 에게)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춤을 통한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고자 한다.</p> <p>○ 단체 연혁 - 2021년 11월 서울경기춤연구회 창단 - 2022년 2월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 2022년 3월 포르쉐코리아 '사이채움 사업 '선정 - 2022년 11월 '2022서울경기춤페스타' 개최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단체 선정 - 2023년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프로그램 운영단체 선정 - 2023년 문화누림프로젝트 '보고 듣는 천년의 유산 운영 ' - 2023년 11월 서울시민간축제지원사업 선정 '2023서울경기춤페스타'</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 2주, 3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1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주, 2주, 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4주, 5주)		

구 분	내 용		
공연실적	<신청 공연실적> ○ 2022.08.1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 2022.08.13. 서울문화재단 포르쉐두드림 사이채움 시즌 선정 ○ 2023.11.11.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초청공연 <단체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명가월륜 : 1. 명가춤의 전승과 재구성	2022.08.13.	서울문화재단 선정작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2022.09.30.	안성시 초청공연
	진관사 '삼각산달오름음악회'	2022.10.16.	
	2022서울경기춤페스타 개최	2022.11.22.-24.	서울특별시 후원
	우리민속한마당 '풍류이십'	2023.01.21.	국립민속박물관 초청공연
	3.1절 104주년 기념공연 '새벽빛비힐제'	2023.02.26.	
	독립운동가 백조월스님 순국 79주기 추모공연	2023.06.18.	
	서희, 새벽의 빛	2023.08.13.	화성시문화재단 후원
국악이 좋다 '명가월륜'	2023.11.11.	국립남도국악원 초청공연	
2023서울경기춤페스타 개최	2023.11.17.-19.	서울특별시 후원	
공연영상	○ https://youtu.be/D2_iBQa-asc?si=Nf0FoEef7Si-GXk2&t=161 ○ https://youtu.be/vhpuzkGyDKs?si=zJ8QxqdoWvO4peLN&t=2		
참여인원	총 39명 (출연진 24명 / 스태프 15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 전통예술인 - 일반 시민 : 가족, 연인, 학교 기업 등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10m)×깊이(10m)	연주단을 위한 무대 후면 덧마루 필요, 빔프로젝터 2개 필요(3만)

구 분	내 용
<p>기획 및 제작의도</p>	<p>- 서울경기권 춤의 재조명과 미전승 전통춤의 발굴 및 복원 근대 전통춤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성준(1874-1942)은 우리 민족의 궁중춤과 민속춤의 양식화 작업을 통해 한국 춤의 무대화를 이룬 인물이다 이. 작업들은 예로부터 문화 예술의 요충지였던 서울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그 맥을 잇는 강선영, (1925-2016)과 조흥동(1941-현재)을 거치면서 서울경기지역의 춤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시대에 약 300여 가지의 춤이 탄생하였는데,무속계열의 춤과 교방의 춤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춤 등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 담긴 다양하고 다채로운 춤이 창작되었다 그중 . 살풀이춤 태, 평무 승무, 등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춤들은 전승의 맥이 약해져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경기춤연구회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고 향,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함을 느껴 미전승 전통춤의 발굴과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다. 따라서 본 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미전승 전통춤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원로무용가들과 이론가 국악인들의 , 자문을 통해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p> <p>- 전통춤의 아버지 한성준의 춤을 현대적 미감으로 풀어낸 무대 공연 <명가월류>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전통춤과 더불어 미전승 전통 춤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무대이다. 따라서 한성준 예인의 춤결과 그 맥을 잇는 강선영 조흥동 - 명무의 춤을 오롯이 담았다 하지만 . 단순히 답습을 넘어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된 전통춤을 선 보임으로써 현시대의 미감에 맞는 신선한 전통춤 무대로 구성했다. 특히 명가월류 중 , < >'원왕생 는 -巫'강선영 선생의 '열두무녀도와'바라춤 무 ; '당춤 을'재해석·재구성한 무대로 연출 윤종현의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무대이다 산자와 . 죽은자의 경계에서 염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의 움직임을 창작적으로 풀어내고 이를 , 다시 전통적 흐름으로 바꾸어 산 자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극적 구성이 매우ダイナミック하다 또한 무대 . , 세트와 영상 소품과 , 의상의 조화가 어우러져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통의 맥을 헤치지 않는 구성이 매우 흥미롭다. 이처럼 본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새로운 미적 감각으로 구성한 새로운 페러다임의 전통춤 공연이다 단순히 . 반복하는 레퍼토리 공연이 아닌, 현시대의 공연 예술 장르 중 하나로서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는 전통춤 공연이라 할 수 있다.</p>
<p>컨셉 및 주제</p>	<p>- 미디어아트 x 전통춤 전통춤 공연은 '지루하다 는'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몇몇 마니아층과 예술계 종사자들이 아니고서는 전통예술 공연을 찾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경기춤연구회는 .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춤 공연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사람들은 좀 더 새롭고 신선한 공연을 원한다 단순히 .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전통예술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보고 이에 몰입하여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공연을 추구한다. 따라서 공연 <명가월류>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공연예술계 정상급 미디어아티스트 정재진과 협업하여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는 영상미학으로 전통춤 작품을 선보인다. 본 공연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단순히 배경을 넘어서 작품의 컨셉과 분위기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 하기 위한 장치로 미디어아트는 개별적인 매체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다. 이러한 영상이 전통 춤 작품과 어우러지면서 무대 위의 공간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보다 몰입도 있는 전통춤 공연을 경험하게 된다.</p>

구 분	내 용				
내용 및 특징	- 프로그램 순서				
	순번	장면	작품명	인원	소요시간
	1	불멸의 춤	강선영류 태평무	7명	9:00
	2		조흥동류 산조춤	3명	7:00
	3		조흥동류 한량무	3명	10:00
	4		강선영류 경기검무	5명	8:00
	5		조흥동류 장고춤	5명	5:00
	6		조흥동류 진쇠춤	5명	9:00
	7	원왕생-무	#1 산자의 노래	17명	20:00
			#2 염원의 소리		
			#3 염원의 몸짓		
	<p>I 불멸의 춤</p> <p>'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뜻을 가진 불멸(不滅), 우리의 한국 춤도 길게는 천 년 짧게는 백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시대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이미 많은 춤들이 소멸된 지금 미약하게나마 전승되고 있는 전통춤 6선을 복원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한성준으로부터 이어진 춤의 맥을 명가(明嘉) 강선영과 월륜(月輪) 조흥동의 작품을 통해 서울경기춤이 가지고 있는 춤의 '미학'을 발견하고 과, '거'의 춤을 '이 시대 의'춤으로 새롭게 탄생 시킨다.</p>				
					
	<p>II 원왕생-巫</p> <p>명가 강선영 선생이 안무한 「열두무녀도 바라춤」을 재해석한 원왕생 는 -巫 강선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한국적 예술의 총체인 굿 을 통해 망자에게는 왕생극락을 산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신명의 춤판을 벌인다.</p>				


구 분	내 용
	<p> #1. 산자의 노래 울울창창한 대숲에 들어서니 바람이 대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애뜻하다 이제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 허망한 나는 이 흐느낌 젖대 우는 소리로 흐트러 본다. </p> <p> #2. 염원의 소리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굿판이 펼쳐지며 굿판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깊은 소리로 부정을 친다 그리고 바람을 마주 비비며 잡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극락의 문을 연다. </p> <p> #3. 염원의 몸짓 혼을 실어, 넋을 올려, 한을 풀어 박수 무녀 모두 함께 왕생극락을 위한 춤을 펼쳐본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삼베천이 나오고 무거운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간다, 죽음의 이별이 아닌 신명의 몸짓으로 환희에 젖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리, 흠향하며 떠나간다.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공연수정 계획> </p> <p> - 근거 있는 전통춤 공연 본 공연은 한성준으로부터 내려오는 명가 강선영 선생의 작품과 월륜 조흥동 선생의 작품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전통춤 공연이다. 즉, 서울경기춤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춤을 한 무대에 모음으로써 서울경기춤의 뿌리와 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공연을 재공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통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라져가는 서울경기춤을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란 초기 공연 기획 목적을 잊지 않고 전통성의 맥을 더욱 단단히 하여 공연의 기반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공연 결과물에서 더욱 근거 있는 전통춤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성준-강선영을 직접 겪은 원로예술인들의 자문과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사전 연구 자료와 문헌을 서치하여 학술적·예술적으로 더욱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p> <p> - 첨단 무대 장치를 활용한 전통춤 공연 본 공연의 초연은 2022년으로 약 2년 전이다. 그때의 공연에서도 다양한 무대장치와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관객들로 하여금 전통춤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 평가 받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더욱 발전된 첨단 기술과 무대 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극적으로 전통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전통춤 무대의 새로운 판도를 열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p>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 한국 춤의 거장 한성준 탄생 150주년 강선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2024년은 '한국 춤의 거장', '근대 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한성준 선생의 탄생 150주년이자, 한성준 선생의 제자로서 한국 춤을 이끌어온 명가 강선영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매우 기념적인 해이다 이러한 . 한국 춤의 역사 속에 본 공연 <명가월륜 은> 한성준과 강선영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한성준 강선영으로 - 내려오는 한국 춤 뿌리의 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한다.</p> <p>- 서울경기지역 춤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전통춤 무대 서울경기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수도로써 정치,문화 예술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왕족이 향유하던 예술과 사대부 양반 신분이 향유하던 예술의 영향을 받아 절제되면서도 정갈한 기품있는 예술이 성행하였다 즉 서울경기지역의 춤은 깔끔하고 절제된, 담백하면서도 기개 있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춤에도 그 성격이 잘 나타나있다. 과거 1930년대 한성준은 우리 춤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역에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궁중과 교방, 사랑방에서 추어지던 전통춤을 양식화하여 무대예술로 승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살풀이춤 승무 태 평무 한량무 등 현대에 명작이라 칭할 수 있는 수많은 춤이 창작되었고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에 올려지면서 체계화되고 규격화 되었다 이는 다시 그의 제자인 강선영과 조흥동에 의해 전승되면서 한성준 강선영 조흥동으로 내려오는 전통춤이 서울경기지역 춤의 특색을 담백 담은 춤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연 <명가월륜 은>한성준 강선영 조흥동으로 내려오는 춤 즉, 서울 경기지역에서 파생되고 발전된 전통춤을 중심으로 풀어내어 서울경기지역 춤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무대 로 만들고자 한다 이같은 공연을 각 지방의 공연장에서 공연 함으로써 각 지역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예술 창조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예술계 전반의 예술 질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p> <p>- 전통예술에 동시대성을 반영한 감각적인 전통춤 : 불멸의 춤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무대 '전통예술'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분하고 지루한 예술이라 '생각한다 또한 과거부터 전해내려 오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고 진부한 것이며, 일반 사람들이 즐기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지 않는 예술이 된 것이 현 전통예술계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심각성을 느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과 예술을 잃을 수 있으며, 점차 소멸되어 후대에는 전통예술의 맥을 완전히 찾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전통예술을 일반인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동시대성을 반영한 감각적인 전통예술공연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본, 공연 <명가월륜 을> 기획하게 되었다. 공연 <명가월륜 은>전통춤과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다원예술 공연이다 미디어아트가 단순히 전통 춤의 무대 배경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춤의 기승전결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별개의 매체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게 된다 즉 전통춤과 미디어아트의 결합됨으로써 춤의 이야기를 극대화 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시대성을 지닌 감각적인 전통춤 공연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 공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자리함으로써 본 공연이 시발점이 되어 이와 같은 감각적인 전통예술 공연들이 지속적으로 올려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반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전통춤의 향유와 전통예술 소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으로써 우리의 전통예술이 맥을 잃지 않고 후대에도 이어지는 불멸의 춤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p>

무용 10 안애순컴퍼니 : 어린왕자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안애순컴퍼니		
공연명	어린왕자		
단체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ahnaesoonproject/
실무자명	이영찬	E-mail	ahnaesoondance@gmail.com
		연락처	02-2633-2071
단체소개	<p>○ 한국적 미학을 더한 컨템포러리 안무가</p> <p>안애순은 명쾌하고 탄성적인 움직임과 세련된 리듬감, 탁월한 공간 활용력으로 선명한 개성을 지닌 안무가로, 한국적 전통과 동양적 미학관을 바탕으로 컨템포러리 댄스의 다양한 실험과 창작에 집중해 왔다. 안애순무용단,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불쌍>, <이미아직>, <공일차원> 등 실험적인 안무작들을 선보여 왔다. 한국 안무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바놀레 국제안무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프랑스 샤이오 국립극장, 벨기에 리에주 극장 등에 초청되어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p>		
공연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0. 09 ~ 10. 11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5주년 기념 가족무용 ○ 2016. 12. 09 ~ 12. 11 국립현대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2.4.1. ~ 2022.4.3.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 몸쓰다 2. 2022.10.8. ~ 2022.10.23.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 잠시 놀다 3. 2021.12.09. ACC예술극장 2, 척 		
공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sbhX26mBPA		
참여인원	총 22명 (출연진 9명 / 스태프 13명)		
소요시간	총 8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체 연령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38m)× 높이(35 m)×깊이(8m)	추후협의

구 분	내 용
<p>기획 및 제작의도</p>	<p>소설 <어린왕자>를 현대무용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했다.</p> <p>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다니며 만나는 기이한 어른들의 특징을 무용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관객들에게 소설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린 왕자와의 상호작용, 유혹, 이별 등의 복잡한 과정은 단순화된 춤의 상징과 이미지로 구현하여 관객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유도하고자 했다. 어린 왕자의 여정 또한 무용을 통해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무용을 사용하여 우주여행과 지구의 중력을 동시에 체험하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과 어린 왕자와의 연결을 형성하고자 하였다.</p> <p>또한, 작품을 통해 어린 왕자의 긴 여정은 하나의 공간 속에 동시에 배치하여 영상으로 상상속 광활한 우주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움직임 또한 그에 걸맞게 극대화하며 시각적, 감각적으로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p> <p>소설 속에는 없는 도시(지구)의 공간은 현실을 새롭게 보기 위한 장면으로 설정하여, 도시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지나치는 모습들은 늘 우리의 곁에 '어린 왕자'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러한 순간들과 생각들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p> <p>마지막으로 작품을 통해 삶에 지친 관객들에게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상상하고, 이 순간만큼은 현실을 벗어나서 지금의 순간을 돌아보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무용만의 특별한 감성으로 소설의 메시지를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p>
<p>컨셉 및 주제</p>	<p><작품 개요></p> <p><i>"넌 어디에서 왔니?"</i></p> <p>비행기 조종사 '나는 하늘에서 떨어져 사막에 불사칙한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은 헤어날 수 없는 모래 늪과 같다. 적막하고 텅 빈 사막에 서서히 들어오는 빛줄기를 따라 가보니 환영인지, 환청인지 아니면 꿈인지 모르는 사이에 어린 아이가 서있다. 그가 들려주는 다른 별들의 이야기를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난다.</p> <p><i>"장미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네가 장미에게 쓴 시간 때문이지"</i></p> <p>어린왕자가 여러 행성을 여행하면서 만나는 어른들은 숫자와 이윤에 집착하고 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기이한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진정한 만남과 관계 맺기에 대해 모른 채 자기 일에만 충실히 복무한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두려움과 막막함도 설렘과 매혹으로 전환시킨다. 장미가 아름답지만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에게 바쳤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p> <p><i>"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어서예요"</i></p> <p>사막과 같은 도시에서 문득 선물과 같이 찾아올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다시 기다린다.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던 삶의 터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 살면서 겪는 술한 만남의 순간들이 불현 듯 피로해질 때 실은 그때야말로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순간이다.</p> <p>"어린 왕자가 선사해주는 것은 발 디디고 사는 지구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비(非)지구의 시각이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것과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이 비지구(어린 왕자에서 우주)공간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구 분	내 용				
내용 및 특징	<p>부대프로그램 (워크숍) 계획</p> <p>우주속 어린왕자 체험</p> <p>무용 <어린왕자>는 순수예술(무용)과 홀로그램 등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제작한 공연인 만큼 움직임과 영상을 접목시켜 내가 우주속에 있는 어린왕자가 혹은 내가 우주속에 있는 행성이 되어 무용수와 함께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본다.</p> <p>소요시간 : 50분 적정연령 : 6세 ~ 10세 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 몸풀기</td> <td style="width: 50%;">소요시간 : 1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우주를 여행하는 나는 어린왕자</td> <td>소요시간 : 20분</td> </tr> </table>	1. 몸풀기	소요시간 : 10분	2. 우주를 여행하는 나는 어린왕자	소요시간 : 20분
	1. 몸풀기	소요시간 : 10분			
	2. 우주를 여행하는 나는 어린왕자	소요시간 :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의 일부장면을 가져와 빔프로젝터에 설치하여 어두운 우주속 별과 행성이 가득한 공간 연출 - 별이 가득한 공간 속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며 쫓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쫓아해보며 '무중력'과 무중력속 움직임에 대해서도 배워본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3. 나는 행성이예요</td> <td style="width: 50%;">소요시간 : 20분</td> </tr> </table>	3. 나는 행성이예요	소요시간 : 20분		
3. 나는 행성이예요	소요시간 :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속 행성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 공연에서 사용되어진 짐볼과 에어 범퍼볼을 구비하여 공연속에서처럼 움직여보고 다른 친구들과 부딪혀보기도 하며 공 주위를 움직여도 보며 내가 하나의 행성이 되는 시간을 가져본다. -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p>2. 관객과의 대화</p> <p>공연 관람 후 안무가와의 Q&A 시간을 갖는다. 공연 내용을 비롯하여 연습 과정과 안무가, 무용수 라는 직업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연의 연장선으로 현직자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p> <p><공연 수정 계획></p> <p>협업 극장 크기 및 환경에 맞추어 공연을 수정 진행할 계획.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극장을 경험함으로써 2024년 유통 이후 국 내외적으로 본 공연을 유통함에 있어 공연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있게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p>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적인 작품<어린왕자>를 통해 무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전작품중 하나이며 본 공연 역시 작품의 내용을 담고있는 무용작품 이기에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무용작품을 일반 관객의 시선에서도 쉽게 관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무용 작품들에 비해 관객의 접근성이 비교적 쉬울 수 있음 - 공연 단체와 각 기관들의 공연 유통 생태계 조성 안애순컴퍼니와 각 지역의 기관들이 공연과 협력프로그램을 함께 기획,운영함으로써 일반적인 공연들과 다른차별성을 가짐. - '안애순 컴퍼니'만의 레퍼토리로 국내를 비롯한 국,외 협업을 위한 발판 마련 본 사업을 통해 공연을 보다 더 발전시켜 국내 유통뿐 아니라 해외 유통을 위한 발판으로도 사용 되어질 수 있음. 				

무용 11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 702 : 발레 판타지아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702		
공연명	발레 판타지아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coop702.co.kr/
실무자명	이소혜	E-mail	coop702@daum.net
		연락처	02-764-0702
단체소개	<p>○ 단체명 :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702</p> <p>○ 플랫폼702는 2002년에 설립되어 국악중심, 스마프프로덕션이란 단체명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해왔으며 그 실적을 바탕으로 2019년 문화예술소설기업으로 탈바꿈한 후 공연, 무용, 미술, 음악, 기획 등 다양한 예술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p> <p>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지역) 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강원도 고성, 삼척, 정선, 양양, 전남 목포, 전북 익산 등의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사업 증진 에 노력하고 있다.</p> <p>○ 단체명 : 이고은 발레단</p> <p>○ 한국창작발레의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고은 발레단'은 1995년에 창단되어 활발한 활동 속에 고유의 색깔을 구축하고 있다. 작품성과 대중적 흥행성을 모두 거머쥔 안무작과 철학적 사유와 감각적 재미를 동시에 갖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p> <p>2019년부터는 발레가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한 '발레 도슨트 이고은과 함께 하는 발레 콘서트'(2019)'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 올려 매진시켰고, 이후 성남아트센터와 함께 '발레 스타즈'(2020, 2021, 2022, 2023) 등의 공연을 올려 성남아트센터에서 매번 전석 매진을 이루는 성공 레파토리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경기아트센터와 함께 <2022 경기도 예술회복 발레 프로젝트>였던 '발레 스타와 경기 예술인이 함께 하는 발레 갈라 콘서트'를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기도 내의 예술인과 발레 스타의 합동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이후 이고은발레단 고유 갈라 레파토리인 '발레 판타지아(2023)'를 제작, 공연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고은 발레단은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최상급 발레 무용수와 다이나믹한 발레 레파토리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여 예술 향유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다른 발레 갈라공연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연출(연극적 접근, 적절한 음향 효과 삽입, 영상 접목 등)을 시도하여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하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3주, 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 2주, 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1주, 2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2주, 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주, 2주, 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3주, 4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19. <발레판타지아> 기획공연 (경기아트센터, 8천만원) ○ 2021.07.11. <발레 스타즈>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2021.07.14. 발레 스타즈 (Ballet Stars) 2021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07.14. 발레 스타즈(Ballet Stars) 2021'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 2023.05.20. SEOUL ARTS DANCE FESTIVAL 동문공연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3. 2023.12.19. '발레판타지아 in Christmas'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youtube.com/watch?v=TdEYhtzTSso ○ https://youtu.be/Hz2xSns93_4?si=ahmfDzUK_sDIUQUc 		
참여인원	총 32명 (출연진 14명 / 스태프 18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일반, 발레를 전공하려는 지역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관객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면적 무대너비(16m)×높이(8m)×깊이(16m) 이상	무대시설 무대-댄스 우드, 눈장치(방염 종이), 갈라막(4조), 상들리에(3개) 조명- 바텐 6개 이상 필요
	기타 사항 ○ 댄스플로어 필요 ○ 연출, 안무대기실, 수석무용수대기실, 남녀무용수 대기실 등 6개 내외 필요		
기획 및 제작의도	1) 기획 및 제작 의도 ○ 2019년 성남아트센터와 이고은발레단, 플랫폼702가 처음 기획한 것으로 '클래식 발레의 원형을 보편적인 콘텐츠와 결합하여 무용계에 진입하려는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일반 관람객에게는 발레공연의 향유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함 ○ 따라서, 기존의 유명작품 중심으로 단막 그랑 파드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막이나 사회자를 통해 작품의 서사, 배경, 출연진을 설명하여 발레의 이해도를 높임		
컨셉 및 주제	2) 컨셉 및 주제 ○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기량은 뛰어난 출연진 구성 -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해적 등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 유명발레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기량이 검증된 청년 예술인 중심으로 출연진 구성		
내용 및 특징	3) 공연 내용 및 특징 ○ 공연 프로그램 - 할리퀸나드 중 그랑 파드되 (10'): 두 평민 남녀의 사랑 이야기의 내용 중 작품 - 해적 중 그랑 파드되 (9'30"): 해적들이 팔러간 노예 두명을 구출하여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작품 - 코팍(1'20"): 러시아의 민속춤인 코팍춤을 발레 레파토리화 한 작품으로, 움직임이 많고 열광적인 특징의 작품 - 인형요정 중 3인무 (10'30"):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소년이 마법의 세계에 이끌려 들어가 펼쳐지는 내용의 작품 - 카르멘 (3'): 오페라 카르멘의 소재로 창작된 모던발레 작품 - 사타넬라 중 그랑 파드되 (11'30"): 축제가 열리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축제의 여왕, 왕으로 뽑힌 두 남녀의 파드되 - 돈키호테 중 그랑 파드되 (11'30"): 매력 넘치는 아름다운 여인과 가난하지만 재치 있는 이발사의 유쾌한 사랑을 담은 작품 - 샘물 파드되 (2'15"):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가곡에 볼쇼이발레단의 안무가인 아사프메르세르가 창작한 2인무 작품. 빠르고 웅장한 템포의 음악에 맞춰 많은 동작을 구사하며 완벽한 2분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작품 - 커튼콜 (5'): 무용수들이 각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관객에게 인사 ○ 공연 특징 - 발레 판타지아는 국내 정상급 발레 무용수와 해외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이 발레 작품 속 주요 장면만을 모아 선보이는 갈라 공연 - 남녀 주역 무용수의 2인무이자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그랑 파드되'를 중심으로 공연을 구성해 발레의 정형미가 돋보이는 무대 4) 공연수정 계획 등 ○ 개최 시즌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변경 - 공연이 개최되는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 따라 군무, 커튼콜 등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변경 ○ 초청하는 지역이 요청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시, 협의 후 진행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1) 기대되는 사업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의 형태이며, 전국 공연장에서 발레공연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과 국제적인 예술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 작품에 대한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용을 감상하는 관객의 저변을 확대함 - 발레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관객들을 유치함 <p>2) 파급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공연을 지역공연장에서 진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연결감을 강화시켜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공연을 즐기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순수예술 중 발레를 감상 기회가 적은 지역 내 주민, 문화 주체들에 향유 기회 제공